

낳을 때 잘 낳아야 고생을 덜 하죠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은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버리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버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사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의 늪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갖에게 상을 베풀어 놓으며 느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구푸리고 살륙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거하지 아니하는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주릴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우므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프므로 울며 심령이 상하므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개역, 이사야 65:1~16]

세 상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하나만 짚으려면 무엇을 짚겠습니까?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마음대로 안되는 게 자식이라고 하죠? 자식을 키워 봐야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든 일입니다. 비근한 예로 아이들이 어릴 때는 ‘혹시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부모가 애써서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알아가는 것, 참 신기합니다. 또 가끔은 천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만하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공부 잘 하고 어찌면 천재가 아닐까 하다가 엄마들이 충격을 제일 세계 받을 때가 중학교 1학년 중간고사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를 지나는 동안에 성적표에 순위가 안 매겨지거든요.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순위가 매겨져 나옵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체법하는 줄 알았는데, 큰일났다’ 해서 과외를 시작하고 온갖 용을 다 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돈은 돈대로 쓰고, 용은 용대로 써도 성적은 제자리에서 널뛰기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엄마가 옆에서 열심히 거들고 해서 잘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크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다른 집은 다 안 하고 우리 집만 그러면 좀 나올 수 있는데 어디 우리 집만 그럴까요? 다들 그러는 걸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다가 안타깝기도 하고 놀리기도 할 겸 “낳을 때 잘 낳아야 지 낳을 때 대충 낳아 놓고 그렇게 용을 쓴다고 그게 되냐?” 하고 놀리기도 합니다.

낳을 때 잘 낳는 게 쉬운 겁니다. 낳을 때 잘 낳아 놓으면 평생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낳아 놓고 난 다음에 안되는 아이 붙들고 온갖 용을 다 써 봐야 안됩니다. 부모 마음대로 잘 안된다는 겁니다. 부모 마음대로 잘 안되는 걸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죠.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어떡합니까?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낳은 게 죄지!’ 다른 죄가 있습니까?

죄 중에 큰 죄가 낳은 죄입니다. 낳은 죄 때문에 아무리 농땡이를 치고 야단을 치고 화도 내지만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낳을 때 머리 좋은 애로 낳지 못한 죄로 온갖 애를 다 쓰

면서 아이를 돌봐주고 믿어줘야 합니다. 말뜻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가끔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낳을 때 잘 낳는데?” 잘 낳는 방법은 없습니다. 부모가 뜻하는 대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표현하면, 부모의 사랑이 깊고 크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부모가 그 아이를 끝까지 돌보는 법 아닙니까? 그걸 다른 말로 낳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느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가 자녀에게 쏟는 사랑을 보면서 어렵듯이 짐작을 할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사랑해 가실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참 못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1절을 보세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답했다’는 얘깁니다. 나를 찾지도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기 있다’ 하고 고개를 내밀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만 하면 내가 대답을 잘 해 줄텐데’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묻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하고 한마디만 하면 ‘나, 여기 있다.’ 하고 탁 튀어나갈텐데 안 찾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부르지 않으니 할 수 없이 아버지가 나와서 ‘나, 여기 있다.’ 하고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어떤 아들인지 몰라도 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도 구하지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더라는 겁니다. 아주 고약한 아들이죠? 누구 이야기입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는데 이들이 도무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일차적으로 이것은 구약의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쏟고 쏟고 쏟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인용을 하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뜻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구하지도 찾지도 않는 이 자식은 얼마나 불효자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동산에서 제사하며’**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어디에서 드려야 합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정해 두신 장소를 버려두고 동산에 왜 올라갑니까? 우상에게 절을 했다는 뜻입니다.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제단을 쌓을 때는 돌을 쪼아서 깎지 말고 자연석을, 돌을 있는 그대로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벽돌 위에서 분향합니다. 그 다음에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아무리 못한 자식이라도 어찌다가 잘하는 수도 있고 어찌 하다 보면 말썽을 피울 수도 있는 법인데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종일토록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노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에,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무덤 사이에 왜 앉습니까? 아마 짐작컨대 죽은 자와 교제를 나누는 고대 영매술이나 죽은 자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금지된 일입니다. 우상숭배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먹으며’** 라고 말하죠? 돼지고기는 이스라엘이 못 먹는 겁니다. 훨씬 뒤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방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문을 가할 때에

돼지고기를 먹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살려주고 안 먹으면 처형시켰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버린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압제가 아닌데도 돼지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는 뜻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5절 보세요. 이런 짓을 하면서도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쏘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노를 항상 불러일으켜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데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패역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뜻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술 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견딜 수 없을 만큼 악한 짓을 계속 저질러 대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짓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녀를 둔 부모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못된 짓은 골라가며 다 저지르면서 “제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수고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얼마나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데요?” 이러면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5절 뒤편에,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라고 합니다. 코에 연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요? 옛날 아궁이에 불 때다가 연기가 나면 참 맵습니다. 매워서 콧물이 나면 거기 못 앉아 있습니다. 코에 연기가 들어가면 못 건디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코에 스며드는 연기더라?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죄가 심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6절에,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 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보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악한 짓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징계하실 때는 반드시 징계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잘 한다, 잘 한다.’고 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잘못하는 데도 오냐 오냐를 계속하면 아이를 크게 망쳐 놓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시겠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야단을 치고 징계해야 될 때에 제대로 징계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혹시 잘못하셔서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책망을 받아 보셨습니까? 만약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했을 때 감사하게 벌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여기 밖에 없나?’ 하고 밖으로 뛰쳐나가겠습니까? 바람직하기는, 교회가 잘못하는 성도들에게 권징을 행하고 징계를 하고 그런 잘못을 한 성도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와 교회 앞에 회개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것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징계할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시행해야 교회가 튼튼해지고 가정 가정이 튼튼해집니다.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하지만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잘, 잘못은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는 반드시 징계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도 죽으라고 패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게 자식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듣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려두고 우상에게 가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이 자식을 어떻게 하니까? 버려야 하니까?

뒤쪽을 계속 읽어보면 바로 이런 자녀 때문에 애타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자식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돌려놓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입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자녀를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낳은 게 죄지다면서 끝까지 돌볼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도 끝까지 돌아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라고 말합니다. 종일 손을 펴고 이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부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1절에 언급한 패역한 자식의 이야기는 3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 했고 2절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모습은 8절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아버지의 재산을 왕창 탕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자식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뛰어 갑니다.

거지꼴로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나 이사야가 말하는 '도무지 말 안 듣는 저 자식들을 향하여 종일 손을 펴고 기다렸노라'고 하는 아버지는 동일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8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배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농부들이 버리려고 하던 포도가지 중에서도 일부를 추려내서 즙을 짜 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징계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일부를 가려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씨를 내고 기업 얻을 자를 하나님께서 낼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가려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10절에, '사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우리는 흔히 사론이라고 하는데 글자를 잘 보세요. 사론이 아니고 사론입니다. 이 사론은 원래 비옥한 평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후에 이 사론은 사막이 될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막같이 되리라고 했던 그 사론이 양떼의 우리가 되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의 눕는 곳이 되고' 아골 골짜기 하면 아간이 생각납니다. 범죄한 아간의 가족을 징계해서 돌무더기를 만들어 버렸던 그 무서운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가 소떼의 눕는 곳, 즉 목장이 된다는 겁니다. 사망의 골짜기밖에 될 수 없고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 곳이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서 소떼와 양떼가 우글거리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그 못난 아들들을 위해서입니다. 코에 연기 같았던 아들들을 위해서 상속해 줄 기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속은 시꺼멓게 타 들어가면서도 이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든 말든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갯에게 상을 베풀어 놓으며 므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갯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본문 밑의 난외주에 보면 운수 신이라고 되어 있죠? 흔히 하는 말로 행운의 여신이죠. 므니는 운명의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상을 벌여 놓고 술을 붓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칼에 붙일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이런 징계가 임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인간들이 딱 두 종류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주릴 것이니라' 이 말이 반복됩니다. 먹어 배부른 자도 있고 굶주린 자도 있고, 마시는 자가 있고 갈한 자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와 수치를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가 있고 우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는 우리 모든 인류가 이렇게 두 종류로 극명하게 갈라질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세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불평등, 잘 먹는 사람 잘 먹고, 못 먹는 사람 못 먹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현상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서 악한 상황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말하는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웃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웃는 자입니다. 우는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우는 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굶주리고 슬퍼하는 자는 그 이름이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너희 집안이 여로보암 집 같기를 원하노라'는 표현과 비슷합니다. 여로보암이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함으로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은 끔찍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이름은 나중에 이렇게 사용되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징계를 본인들이 다 당하게 되리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은 왜 그렇게 큰 복을 받고 징계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처절한 징계를 받게 됩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이 두 종류로 갈라집니까? 답은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10절 중간쯤에, '나를 찾은 배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하나님을 찾은 자 그가 곧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다. 이런 저주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11절에,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신을 잊고' 그러죠?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립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과 못 먹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징계 주셔서 완전히 갈라지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서 이런 상황이 언제를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와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고 또 어떤 자들은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가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데 이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훗날 모든 인류가 두 종류로 분명하게 갈라질 날이 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을 갖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이것이 결국은 종말에 대한 묘사라고 봐야 되겠죠?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명백하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못난 자식 때문에 그렇게 애타 하시던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는 자식이 그렇게 애를 먹여도 별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꺾꺾 눌러 참으며 온갖 분노가 다 치밀어도 겉으로는 웃고 지내는 것밖에 별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약입니다. 안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게 가장 위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고 징계도 하고 맷을 들고 그러셨지만 끝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갑니다. 그렇게 완성시킬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다 참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16절부터 25절까지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 번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16절만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복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 복을 구할 것이고 맹세하는 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는 이전 환난이 있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음이니라’** 환난이 있어졌고? 웬 환난입니까? 우상에게 맹세하고 복을 빌었기 때문에 받았던 환난입니다. 그것이 깨끗이 없어졌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16절부터 시작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17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날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끝내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고 아름답게 이루어나갈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견디어 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아담이 그랬고 그 후손들이 그랬습니다. 노아시대에 그 배신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지만 그렇게 해서 세워놓은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유행가 가사 비슷한데 ‘사랑해서는 안될 사랑을 한 그제 죄라는 말입니다. 사랑받을만한 자격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초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결국은 처음에 작정하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는 꽃이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던 인간들을 다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회복된 세상을 말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과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

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쏟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큰 사랑을 쏟았지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만한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낳을 때 잘 낳아야 고생을 덜 하죠?' 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할만한 존재를 사랑하셨어야지 왜 능력도 없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말과 비슷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이것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보고 '낳을 때 잘 낳아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됩니다. 이건 엄청난 불효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걸 놔두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 모양으로 낳을 것 때문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면 불효도 보통 불효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은, 우리는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곤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이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부족하지만 다음 번에는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 중에 참 안 좋은 게 정말 많습니다. 마는 그 속담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나쁜 속담입니다. 작심삼일!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새벽기도 나가야 되겠다! 며칠 나가야 합니까? 사흘만요? 아니 마음 먹으면 좀 더 가잖아요? 왜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삼일만 해도 안심하도록 그렇게 만드느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도록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은 백성은 결국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습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고 해도 내가 찾기 전에, 내가 알기 전에 나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고 용기를 내야 할 이유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